

출협, '2002 메트로 북메세' 운행할 예정 · 외

대한출판문화협회(회장 나춘호)는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(대표 유성욱), 서울시지하철공사와 공동으로 지하철 4호선에서 책열차 '메트로 북메세'를 운행할 계획이다.

책을 실은 특별전동차는 총 10량에 분야별 책을 나눠 싣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 하루 10대 운행될 계획이다. 추진위원회는 행사기간인 165일 동안 2천여만명의 탑승객에게 총1만권의 도서와 다양한 책 관련 이미지를 선보일 계획이다.

전동차 10량은 각각 ▲책의 역사 ▲교양의 샘 ▲문학의 숲 ▲과학, 미래의 세계 ▲청소년 추천도서 ▲잡지의 세계 ▲어린이 책세상 ▲유아 도서 ▲만화, 애니메이션 ▲화제의 책 등 주제별로 꾸며지고, 환승역마다 도서관매대를 설치해 책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

| 735-2701 | www.kpa21.or.kr

문화관광부, <도서관 발전 종합계획> 추진

문화관광부(장관 남궁진)는 지난 5일 <도서관 발전 종합계획>을 발표했다. 이는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춰 도서관을 정보화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

한 계획으로, 주요 내용은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을 750관으로 늘리고, 국민 1인당 1권까지 장서 수준을 확충하는 것이다. 종합계획에는 ▲공공도서관 위탁운영 ▲사서자격증제도의 점검 및 전문인력 양성 ▲국립디지털도서관의 기능정립 ▲전자출판물의 효율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강화 ▲학습지원시설로서 학교도서관 기능 정상화 ▲도서관간 우수협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등 제도개선과 지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. | 3704-9430 | www.mct.go.kr

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(2월의 읽을 만한 책)

<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> 선정

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(위원장 윤양중)는 <2월의 읽을 만한 책> 10종과 <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> 20종을 선정·발표했다.

<2월에 읽을 만한 책>에 선정된 책은 ▲<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>(김혜순, 문학동네) ▲<주구점의 북경인(전2권)>(리밍성 외, 심규호 외, 일빛) ▲<청소년을 위한 철학자 이야기>(안광복, 신원문화사) ▲<중국의 몰락>(고든 G. 창, 형선호, 뜨인돌) ▲<코

끼리와 벼룩>(찰스 헨디, 이종인, 생각의나무) ▲<문화민주주의>(데이비드 트렌드, 고동현 외, 한울) ▲<에펠로그>(칼 세이건, 김한영, 사이언스북스) ▲<얼굴—조광호의 그림과 글>(조광호, 샘터) ▲<매화>(이상희, 넥서스북스) ▲<세밀화로 그린 곤충도감>(도토리 기획·권혁도 그림, 보리)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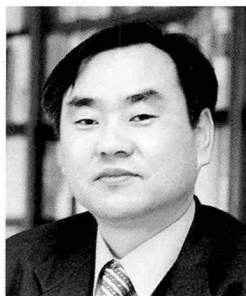
<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>에 선정된 책은 ▲<역사란 무엇인가>(E. H. 카, 김택현, 까치) ▲<중국철학사>(풍우란, 박성규, 까치) ▲<The Goal>(엘리 골드렛 외, 김일운 외, 동양문고) ▲<마텐 박사의 성공목표설정연습장>(오리슨 마텐 재단, 오근영, 현실과미래) ▲<책그림책>(밀란 쿤데라 외, 장희창, 민음사) ▲<걷기예찬>(다비드 르 브르통, 김화영, 현대문학) ▲<미국의 민주주의(전2권)>(A. 토크빌, 박지동 외, 한길사) ▲<인간 소외>(에리히 프롬, 김남석, 을지출판사) ▲<사회정의론>(J. 롤즈, 황경식, 서광사) ▲<카르멘>(메리메, 김진옥, 범우사) 등 인문사회과학 부문 10종과 ▲<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>(박성래, 교보문고) ▲<과학과 메타과학>(장희익, 지식산업사) ▲<자연과학의 세계>(김희준, 자유아카데미) ▲<과학혁명의 구조>(토머스 S. 쿤, 김명자, 까치) ▲<이중나선>(J. D. 왓슨, 하두봉, 전파과학사) ▲<개놈>(매트 리들리, 하영미, 김영사) ▲<우리과학 100년>(박성래 외, 현암사) ▲<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>(최재천 외, 궁리) ▲<생명의 느낌>(이블린 폭스 켈러, 김재희, 양문) ▲<이타적 유전자>(매트 리들리, 신좌섭, 사이언스북스) 등 자연과학 부문 10종이다.

| 669-0772 | www.kpec.or.kr

“투명하게 조합 이끌겠다”

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한울 김종수 대표

지난 2월 7일 치러진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한울 김종수 대표(46)가 유효표 579표 가운데 305표를 얻어 273표를 얻은 전 이사장 세계사 최선호 대표를 누르고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. 김종수 이사장은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조합 운영, 매출 증대, 공급조합비 인하 및 지불제도 개선, 조합원사의 출판인프라 구축, 이사장 판공비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. 김종수 대표의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다.



— 이사장에 당선된 소감은?

조합원들이 주인 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듯하다. 나를 지지했다기보다는 전 조합 이사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요구가 나를 당선시킨 것이다. '이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하지 않을 사람 아니다' 라고 생각해서 나를 뽑아줬다고 생각한다.

—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가?

공약한 대로 모두 해나갈 것이다. 무엇보다 조합을 검소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. 그리고 이사장이든 이사는 직원이든 자신의 본분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투철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겠다.